

# 전남교육청,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인기

### 서울 학생 대상 1차 모집 결과 77명 자녀 유학 희망 신청 '가족체류형' 신청 많아 인구유입·지역활성화 마중물 기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협약을 맺고 공동 추진하는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서울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 1월 5일까지 서울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유학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63명, 중학교 14명 등 모두 77명이 신청했다.

운영형태 별 신청자는 가족체류형 52명, 홈스테이(농가)형 23명, 센터형 2명 등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들을 도내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7개 등 총 22개 교에 매칭했다.

도교육청은 유학 희망자 중 '가족체류형'이 대부분을 차지한 점에 주목, 향후 이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면 작은 학교 살리기는 물론 농산어촌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1차 모집에 이어 21일까지 2차 모집에 나서는 한편, 해당학교와 시·군 지자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는 등 오는 3월부터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설명회는 지난 18일 화순교육지원청에서 중부권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20일에는 오전 영암교육지원청에서 서부권 8개 지역, 오후 순천교육지원청에서 동부권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개최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1차모집 결과 서울 학부모들의 가족체류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일선 지자체에 △ 주거환경개선 △ 주택제공 등 주거에 대한 지원 △ 안전망 구축 △ 마을연계 프로그램 제공 △ 유학경비 등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함을 안내했다.

또, 지원청과 학교의 협조사항으로 △ 유학생(학부모) 사전방문 및 면담기간동안 유학생(학부모) 응대요령 △ 유학생과 농가관리 △ 안전망 구축 △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농가시설 기준 관리, 각종 안전대책, 학생 생활안전 및 감염병예방 수칙 준수, 아동학대 예방 및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등이 담긴 '농가(센터) 운영 길라잡이'를 제작 배부했다. 오는 2월 25일까지 지역 별로 농가부모 대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부모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 면담을 실시하고, 유학생 거주 지역 및 학교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지역 별로 주거 제공 등 지원내용에 편차가 있어 서울 학부모들이 특정지역 학교만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며, "고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편중되지 않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을 바랐다.

도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2월7일까지 유학을 희망한 학교와 농가를 사전 방문해 면담을 가진 뒤 서울 학부모들의 최종 의견을 반영해 2월 18일유학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혁신교육과 범미경 과장은 "전남교육청

과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어촌유학은 전남의 작은학교 살리기 뿐 아니라 인구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랐다. 또, "농산어촌유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유학생과 농가 관리를 통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7일 서울 학생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덜한 전남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해 생태친화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학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유학 형태는 농가에서 거주하는 농가형, 가족이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지역 내 센터에서 생활하는 센터형으로 나뉘며 6개월 이상 전학함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김정환기자



## 광주동부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계획'

### 건강한 학교실현 위한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2021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현장 안전점검'은 교육감 8대 공약 50개 실천 과제 중 '건강한 학교실현을 위한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매년 계획 수립 후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 등록 여부 ▲매월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기록 보관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설치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해 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021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동부 관

내 공·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15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해·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 광주시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대상 자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전문성 향상 및 청렴 의식 함양 계기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감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일 자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자체 역량 강화 연수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청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올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자체 역량 강화 연수는 시교육청 배민 감사관의 ▲2021년 감사 방향 ▲적극행정면책 제도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다음 연수는 외부전문가 특강(감사 기법 및 감사 사례)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자체 감사 개선 방안 ▲고충민원 제도 ▲반부패 청렴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수를 진행해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시대 학교의 자율권 보장 및 책임행정 확산을 통한 청렴한 광주교육 구현을 위해 47개 유·초등학교에 대한 학교자율 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자체 감사 기본계획'을 산하기관 및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조인호기자

## 영암교육청,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학부모·지역민 '호응'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기본 역량 함양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학부모와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조기개입(조기진단 및 지원), 1:1 개별화 지도, 교원 역량강화를 3대 원칙으로 삼고 학교와 협업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결실이었다.

영암교육지원청은 기존 3학년에서 진행했던 3R's(읽기,쓰기,셈하기) 기초학력 진단을 2학년으로 앞당겨 진단하였고, 1학년 2학기에 한글미해독 학생에 대한 조기진단을 실시하였다. 1년 동안 꾸준히 기초학력에 열과 성을 쏟은 결과, 학기초에 3R's 미도달, 한글미해독으로 진단되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제되었으며, 보충이 필요한 몇몇의 학생들은 이

번 겨울방학 동안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0년 영암교육지원청이 학생지원을 위해 도입하여 성공을 거둔 비결은 1:1 개별화지도이다. 학생마다 부진 영역이 다르고, 발달단계가 달라 교사 1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부진 영역에 따라 학생과 교사를 1:1 매칭을 시켜 개별 맞춤형지도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한글미해독 및 3R's 미도달 학생을 포함한 80여 팀을 매칭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 지원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정서 심리치료 및 언어치료를 병행하여 지원하였다. 지원하는 중간중간 그 동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지원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담임교사, 교육청 지원인력,

상담사, 치료사, 학교관리자, 장학사 등 학생을 지원하는 모든 관계자가 참석한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 하나하나의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영암=조대호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